

도로이용자의 안전운전을 배려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설치방안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수익이 고려되어 노선별로 운영을 차별화
 -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는 상·하행선 26km마다 1개소 배치 운영
 -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간 평균간격은 41.5km로 교통량에 따라 차별화
- 고속도로 휴게소 배치가 운전자의 필수적 요소도 배려하지 못하여 불안
 -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27.6km 구간에 1개소도 없음
 - 고속도로 휴게소 18개소의 간격은 45km 이상으로 배치되어 안전운전 위협
- 피로는 안전운전의 위험요소로 휴게소 부족 시 교통사고의 개연성 높음
 - 고속도로 차량단독 사고는 7.1~8.7%로 졸음운전과 연관 높음(경찰청 자료)
 - 영국의 고속도로 충돌사고 중 최고 20%는 피로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 호주의 차량 충돌사고 중 5~25%는 피로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 해외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근접배치 경향
 - 일본은 50km마다 대형휴게소, 15km마다 간이휴게소를 배치
 - 덴마크는 고속도로(978km) 25km마다 최소한 1개소의 휴게소 운영
 - 프랑스의 ASF 고속도로(2562km)에서는 평균 약 18km마다 휴게소 운영 중
- 휴게소 간격이 긴 곳에 운전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간이휴게소 설치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는 영업이익보다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우선 배려해야 함
 - 간이휴게소를 적절히 설치하여 이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높임

1.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기준

-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로부속시설로 규정
- 휴게시설 간 배치는 15~25km, 휴게소 간 배치는 50~100km를 권장하고, 간이휴게소^{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함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배치간격은 41.5km당 1개소이나 노선별로 차별

- 경부고속도로는 26km, 88올림픽고속도로는 46km, 중앙고속도로는 41km당 1개소

【 표 1 】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소 평균 간격('07년 말)

노선명	계	경부선	88올림픽선	서해안선	호남, 천안-논산선	중앙선	영동선
연장(km)	3136	416	182	341	276	289	234
휴게소 수	151	32	8	18	13	14	13
평균 간격(km)	41.5	26.0	45.5	37.9	42.5	41.3	36.0

주: 연장 계는 표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나라 모든 고속도로 노선을 포함한 것임. 휴게소 수는 상·하행선 겸용(중부 만남, 경부 금강, 서해안 행담도) 포함. 휴게소 간 평균 간격은 양방향 연장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 표 2 】 고속도로의 인접 휴게소 간 간격이 긴 사례

전 휴게소 명칭	후 휴게소 명칭	방향	거리(km)	해당 고속도로
군산	고창	목포	67	서해안선
단양	안동	부산	62	중앙선
곡성	백양사	천안	58	호남선
정읍	여산	서울	58	호남선
칠곡	추풍령	서울	55	경부선
홍천강	원주	부산	54	중앙선
덕유산	인삼랜드	하남	45	대전-진주선
문경	선산	마산	45	중부내륙선
남강	진영	부산	45	남해선

자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주) 휴게소는 사람과 차량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의 완전하게 제공하는 휴게시설이며, 간이휴게소는 짧은 시간 내에 차의 점검정비 및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변속차로, 주차장과 녹지 및 화장실을 구비한 휴게시설을 가리킴. 그러나 본 브리프에서 설명하는 외국의 간이휴게소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휴게소 간 간격이 45km 이상인 곳이 18개소에 달함
 - 가장 간격이 긴 곳은 서해안선 군산-고창 휴게소(67km), 가장 인접한 곳은 경부선 입장-안성 휴게소(13km)
 - 휴게소 간격이 50km 이상으로 주행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은 12개 구간

2. 문제점

-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
 - 휴게소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우선 배려해야 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는 휴게소를 개업하지 않음
 - 2006년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업이익은 561억 원으로, 1개소당 평균 3.8억 원
- 고속도로 첫 휴게소도 최초 출발지에서 먼 곳에 입지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 저해
 -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는 인천에서 55km, 88올림픽고속도로 거창휴게소는 옥포에서 50km, 서해안선 화성휴게소는 시흥에서 38km 등 원거리에 입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은 127.6km이지만 휴게소가 없어 정체 시 쉴 곳이 없음
- 장거리 주행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의 개연성이 높아짐
 - 고속도로의 주행속도가 시속 100km일 경우 50km를 30분 정도에 갈 수 있지만, 교통량 증가, 눈·비로 교통이 지체되면서 주행시간이 늘어나면 피로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 휴게소가 없는 구간에서 노견주차, 노상방뇨, 졸음운전 등이 빈발함
 - 영국 Highway Code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2시간 운전 시 15분 쉴 것을 권장
- 고속도로의 졸음과 관련된 교통사고 비중도 높은 편
 - 고속도로상의 졸음운전과 관련 깊은 차량단독사고는 7.1~8.7% 점유(경찰청 자료)
 - 영국 고속도로 사고 중 피로관련 충돌사고가 최고 20% 정도로 추정('06)
 - 호주의 차량 충돌사고 중 5~25%는 피로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96)
 - 휴게소 없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노견주차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1~5%(미국)

3. 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배치 기준

- 일본은 고속도로 50km마다 대형휴게소, 15km마다 간이휴게소(parking areas) 배치
 - 민영화된 고속도로(9052km)의 대형 또는 간이휴게소 798개소의 평균 간격 22.7km
-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근거리 휴게소를 운영하며 운전자 편의를 제공
 - 영국은 고속도로 약 48km마다 휴게소를 배치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24km마다 또는 주행시간 30분마다 배치 추진
 - 프랑스는 ASF 고속도로 2562km에 휴게소 286개소로 약 18km마다 운영('06)
 - 덴마크는 978km의 고속도로에 최소한 25km마다 휴게소 운영('06)
- 호주의 대형휴게소는 100km, 간이휴게소는 50km, 간이정차대는 30km 간격 배치
 - 운전자의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휴게소도 운영
-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기준은 100km 또는 한 시간 주행거리로 두고 있음
 - 최근 모니터링을 한 후, 40~50km 간격으로 휴게소를 배치할 것을 추천

4. 도로이용자를 배려한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방안

- 1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전운전의 필수요소
 - 고속도로에는 속도가 다른 차량이 움직이고, 운전자의 심신상태도 천차만별이므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 에 따른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
- 2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휴게소 간격이 긴 곳에 간이휴게소 설치 필요
 - 해외의 고속도로 휴게소 배치는 간이휴게소를 포함하여 15~30km로 근거리화
 - 우리나라도 교통량이 적어서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곳에 간이휴게소 운영 필요

●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조남건 연구위원 (031-380-0336, ngcho@krihs.re.kr)